

백만 원이 적다면 백만 원 더!

신 승열

2005년 여름이었다.

나는 서울 동대문에 위치한 기동대에서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로 발령을 받았다. 전혀 희망하지 않았고, 예상치도 못했던 부서로의 발령이라 당혹스러웠지만 '경찰생활 동안 경험이 되리라' 스스로를 위로하며 차곡차곡 배워나갔다.

그 당시는 24시간 근무에 48시간을 쉬는 방식이었는데, 실제로는 당일 접수한 음주·무면허 건에 대해서는 송치서류를 모두 만들고 퇴근해야 했던 관계로 밤을 꼬박 새우고도 다음날 점심때나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 갈 수 있었다.

그렇게 3년간 근무하며 힘든 기억도 많았고, 뺨소니범을 잡아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었던 고마운 기억도 있지만, 유혹에 고스란히 노출되었던 경험도 더러 있었다. 그 유혹의 기억들 중에는 사고조사를 위해 현장으로 나가는 차 안에서 떨리는 손으로 돈을 세어 건네주려 했던 모범택시 운전자, 사건을 친절하게 잘 처리해 주어 고맙다며 봉투에 상품권을 두툼하게 담아 건네던 회사원, 음주운전을 봐 달라며 꼬깃꼬깃 접은 돈을 슬며시 건네던 술 취한 어르신 등이 있지만 가장 기억나는 것은 자동차 무면허 운전 사건을 처리하며 겪었던 일이다.

그날은 유난히도 교통사고가 많아 정신이 없었던 날로 기억된다. 바쁜 점심식사를 막 마치고 자리에 앉았는데 지구대 경찰관들이 무면허 운전자를 붙잡아 사무실로 데려왔다. 20대 초반의 그 남자는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아쉽게도 하루만 더 참았으면 정지기간이 끝나게 되는 상황이었다.

담당 조사관으로서도 참 아쉽고 딱하다는 마음이 들어서 위로를 건네며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팔에 깁스를 한 운전자의 친구가 찾아왔다. 방문한 친구의 사연인즉, 자신이 그 차량의 차주인데 팔을 다쳐 운전이 곤란한 관계로 정지기간이 하루 밖에 남지 않은 친구에게 운전을 부탁했다가 경찰관에게 붙잡혔다는 것이었다.

조사 내내 보달라며 음소하던 그 젊은 차주는 조사관의 강경한 태도에 희망이

없다고 판단해서인지 바깥으로 나갔다가 조사가 끝날 즈음 음료수 1박스를 들고 다시 나타났다. 마음만 받겠다며 한사코 사양했지만 울먹거리며 음료수라도 드시라고 우겨대는 바람에 받아두었다.

그들이 조사를 마치고 돌아간 지 약 10분 쯤 지나 팀원들과 음료수를 나눠 먹기 위해 박스를 열었는데 그 안에는 음료수만 있는 게 아니라 하얗고 두툼한 돈 봉투가 함께 들어 있었다. 세어 보지는 않았지만, 100만원은 족히 되어 보였다.

돈 봉투를 보자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전화기를 집어 들었다. 한참 동안 신호가 가도 받지 않기를 여러 번, 네 번째 전화를 걸고 나서야 겨우 통화를 할 수 있었다.

“젊은 친구가 이게 뭐니까? 사정은 딱하지만 봐 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몇 번을 말했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소리가 나왔고, 상대방의 주눅이 든 목소리가 들렸다.

“빨리 와서 가져가세요, 뇌물공여죄로 입건하기 전에.”라는 말로 통화를 마쳤지만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다.

한 시간 쯤 지났을까? 그 젊은 차주는 깁스를 하지 않은 팔에 스포츠 신문을 든 모습으로 사무실로 들어왔다. 생각 같아서는 욕을 한바가지 퍼부어 주고 싶었지만 곧 군대 입대를 한다며 울먹거리는 모습을 보니 다독여 줄 수밖에 없었다.

내가 그 돈을 받고 무면허 운전을 눈감아 준다면 나는 파면 될 것이고, 다른 경찰관이 다시 그 사건을 무면허운전으로 조사할 것이다. 그 경찰관이 돈을 받고 파면 되면 또 다른 경찰관이 당신 친구를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하게 될 것이니 이걸 도무지 어떻게 해 볼 수가 없는 일이라며 차분히 다독였다.

돈 봉투를 도로 건네주고 대화가 끝날 때 쯤 그 친구가 들고 들어온 스포츠신문이 눈에 들어왔다. 좋아하는 연재만화가 있던 신문이라 아무 생각 없이 “읽어봐도 되느냐?”라는 말과 함께 신문을 들고 펼치는데 하얗고 두툼한 돈 봉투가 떨어졌다.

분명히 그 친구 손에는 내게서 돌려받은 돈 봉투가 들려 있었는데 신문 속에 또 다른 돈 봉투를 감춰 들고 왔던 것이다. 이쯤 되자 너무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다. “이 친구야, 이걸 또 뭐여~”라고 물어보니 100만원이 너무 적어서 경찰관이 다시 불렀다고 생각하고 급히 100만원을 추가로 더 구해왔다는 것이다.

젊은 차주는 그 일이 있고 나서 약 10일 뒤에 군에 입대했는데, 입대 전까지 친절하게 처리해 주어 고맙다는 내용, 인생의 큰 교훈을 얻었다는 내용, 운전면허가 취소된 친구와도 화해를 잘 했다는 내용 등으로 연신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 상품권을 건네려 했던 회사원은 5년이 지나서까지 명절마다 고맙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모범택시 운전기사와 술 취한 어르신께도 참 훌륭한 경찰관이라는 칭찬을 받았다.

그런 기억들을 뒤로하고 경찰 근무 10년 만에 서울을 떠나 아내의 고향인 충청북도에 정착하게 되었다. 그 시간도 벌써 8년이 되어가지만 유혹의 환경에 노출된 경험은 물론, 유혹을 당당히 거절한 에피소드조차 없이 근무를 이어오고 있다. 청주권 지구대에 근무 할 때는 정말 친절하게 처리해 주어 고맙다며 들고 온 음료수까지 설득해서 돌려보내느라 오히려 그 분들의 반감을 사는 경우까지도 있었다.

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에는 과거의 기억이 크게 작용한다. 부패인식지수 조사를 할 때도 '경찰관이 아직 뇌물을 받는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상당수의 국민들이 긍정을 하면서도 막상 '최근 일정기간 동안 직접 뇌물을 건네 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이를 부정하는 응답률이 현저히 높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의 시각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공직사회에 한 방울의 검정물이라도 튀면 이를 희석시키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지>를 재차 명심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흔히들, 부패는 돈과 연관 지어서만 정의하려 한다. 하지만 그 공식은 이미 오래전에 깨졌다. 금전과 관련된 부패는 당연히 근절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제는 월급을 받고 근무를 소홀히 하는 것, 인사 발령 시 좋은 자리를 가기 위해 청탁하는 것 등이 부패 개념의 중심이 되었다.

「젊은 경찰관이여 조국은 그대를 믿노라!」

18년 전 경찰관이 되기 위해 충주에 있는 중앙경찰학교에 도착했을 때 정문 옆 조경석에 새겨진 글자였다. 얼굴에 주름은 늘었지만 청렴에 관한 의지

는 해가 갈수록 더 젊어지는 것 같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 보호를 위해 일 할 수 있다는 긍지, 그 '긍지'는 비단 경찰관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에게 있어서 어떤 재물보다도 값지고 귀하다.